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소장 『百氏通譜』의 편찬 시기에 대한 고찰

A Philological Studies on *Baekssitongbo* of Jangseogak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안 광 호 (AN, Gwang Ho)*

◁ 목 차 ▷

- | | |
|-------------------|--------|
| 1. 서론 | 4. 결론 |
| 2.王妃 관련 기록을 통한 고찰 | <참고문헌> |
| 3. 다른 기록을 통한 추정 | |

<초 록>

이 연구는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百氏通譜』의 편찬 시기를 고찰한 것이다. 『百氏通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이용되었지만 具義書(1861~1930)에 의해 편찬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정확한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百氏通譜』의 기록을 통하여 이 譜牒이 어느 시기에 작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百氏通譜』는 憲宗의 繼妃인 孝定王后가 왕비의 지위에 있던 1844년(헌종 10)에서 1849년(헌종 15) 사이의 어느 시점부터 그 편찬이 시작되었고, 高宗의 妃인 明成皇后가 왕비가 된 1866년(고종 3)에서 哲宗의 妃인 哲仁王后가 사망한 1878년 사이의 어느 해인가 그 내용이 대대적으로 수정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기존 연구에서 『百氏通譜』의 저자로 언급한 具義書의 생존 시기에 맞추어 보면, 『百氏通譜』는 아마도 孝定王后가 王妃의 지위에 있던 시기에 편찬이 시작되었고 이후 明成皇后가 王妃의 지위에 있던 시기에 크게 수정되었으며 이후 다시 具義書에게 전해져 완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要語: 百氏通譜, 綜合譜, 具義書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ompilation of *Baekssitongbo*, which is possessed by jangseogak of Academy of Korean Studies. According to the study, *Baekssitongbo* was firstly compiled at the time of Hyojeongwanghu, who was a wife of King Heonjong, and was recompiled at the date of Myeongseongwanghu, who was a wife of King Cheoljong. Guhuiseo, who is mentioned a author by many studies and scholars, finally completed the compilation.

Key words: *Baekssitongbo*, General Geneology, Guhuiseo

*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lose-angle@hanmail.net)

접수일: 2018년 8월 20일 최초심사일: 2018년 8월 31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10일
서지학연구, 제76집, 237-250,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6.237]

1. 서론

『百氏通譜』는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에 소장되어 있다. 이 譜牒은 모두 46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46권 안에는 모두 51개 姓氏의 가계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51개 姓氏의 가계는 각기 여러 개의 本貫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데, 이 51개 姓氏에 따른 本貫의 수는 모두 224개이다. 『百氏通譜』의 편찬자는 이 가계들을 필사의 형태로 정리하였다.

『百氏通譜』와 같이 여러 姓氏의 가계를 한 데 모아놓은 族譜를 綜合譜라 하는데, 현재 한국학계에는 『氏族源流』, 『萬家譜』, 『百氏通譜』, 『韓國系行譜』, 그리고 『靑邱氏譜』와 같은 綜合譜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¹⁾ 이 綜合譜 가운데에서도 『百氏通譜』는 그 내용에 있어서나 분량에 있어 한국 綜合譜의 ‘白眉’라 일컬어질 정도로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百氏通譜』에 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百氏通譜』가 누구에 의해서 편찬되었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편찬되었는지 하는 사실은 『百氏通譜』를 이용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사실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百氏通譜』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다.

물론 조선 시대 族譜에 관련된 연구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 『百氏通譜』가 韓末에 활동하였던 具義書(1861~1930)에 의해 편찬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²⁾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百氏通譜』에 나오는 내용을 검토하여 이 綜合譜가 편찬된 연대를 추적해 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연구는 조선 시대 綜合譜 가운데에서도 ‘白眉’로 알려진 『百氏通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王妃 관련 기록을 통한 고찰

『百氏通譜』가 언제 편찬되었는지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百氏通譜』에서 발견되는 왕비 기록을 통해 그 편찬 시기를 추정해 보면, 이 譜牒은 아마도 憲宗 연간에 그 편찬이 시작되었고 高宗 연간에 이르러 그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1) 이상의 綜合譜 가운데 『氏族源流』는 1991년에 保景文化社에서, 『萬家譜』는 1992년에 民昌文化社에서, 『韓國系行譜』는 1992년에 寶庫社에서, 그리고 『靑邱氏譜』는 1996년에 民昌文化社에서 영인되어 판매되었다.

2)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百氏通譜』가 具義書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사실은 宋俊浩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그 후, 연구자들은 이 宋俊浩의 말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宋俊浩, 『朝鮮社會史研究』(서울: 一潮閣, 1987), 44-45n25.; 安承俊, “萬家譜解題,” 『萬家譜』(서울: 民昌文化社, 1992).; 최양규, 『한국 족보 발달사』(서울: 해안, 2011), 79n128.; 박홍갑, 『우리 성씨와 족보 이야기』(서울: 산치림, 2014), 304-305.; 차장섭, “조선시대 족보의 유형과 특징,” 『歷史教育論叢』 44(2010), 268.; 정승모, 『한국의 족보』(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0), 45-46.; 安光鎬, “中國의 郡望制度和 韓國의 本貫制度 비교 - 중국의 清河崔氏와 韓國의 南陽洪氏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8(2016), 118n39.

그리고 이 『百氏通譜』가 편찬된 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추정해 보면, 憲宗의 繼妃인 孝定王后(1831~1904)가 王妃의 지위에 있던 1844년(헌종 10)에서 1849년(헌종 15) 사이의 어느 시점부터 그 편찬은 시작되었고, 高宗의 妃인 明成皇后(1851~1895)가 王妃가 된 1866년(고종 3)에서 哲宗의 妃인 哲仁王后(1837~1878)가 사망한 1878년(고종 15) 사이의 어느 시점인가 그 편찬 작업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선 시대에는 족보에서 王妃를 기록할 때에 일반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王妃가 생존해 있을 당시에 부르던 칭호와 사망한 이후에 부르는 호칭이 서로 달랐다. 우선, 조선 시대에는 王妃를 그 아버지가 되는 사람의 이름 밑에 다른 형제들과 함께 기록되, 다른 딸들의 경우에는 그 딸의 남편이 되는 사람의 이름을 써넣은 데 비하여, 王妃의 경우에는 아버지 이름 밑에 ‘女○○○’이라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그 면의 최상단에 王妃의 호칭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王妃를 기록하였던 이유는 조선 王室을 극진히 존중한다는 뜻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였다. 또한 조선 시대 사람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의 왕에 대하여 ‘主上殿下’나 ‘今上’과 같은 칭호로 불렀고 그들의 王妃에 대해서는 ‘中宮殿’이나 ‘中殿’과 같은 호칭을 사용하였으며, 사망한 왕에 대해서는 ‘太祖’나 ‘定宗’이니 하는 廟號를, 그들의 王妃에 대해서는 ‘神懿’, ‘神德’, ‘定安’와 같이 諡號를 만들어 지칭하였다. 그리고 先王의 王妃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지위에 맞춰 ‘王大妃’나 ‘大王大妃’라 불렀고, 때로는 ‘純祖王后’와 ‘哲宗王后’와 같이 先王의 廟號로 부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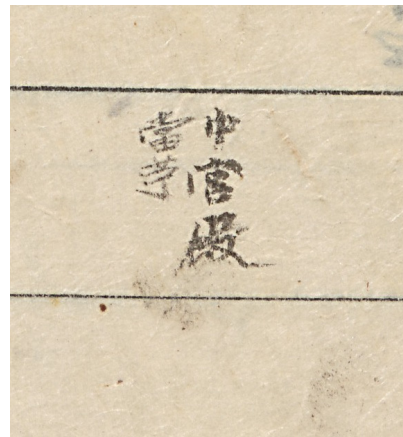
『百氏通譜』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모두 38명의 王妃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이를 보면 定宗의 妃인 定安王后(1355~1412)와 肅宗의 妃였던 禧嬪 張氏(1659~1701)는 그 가계를 『百氏通譜』 안에서 찾아볼 수 없고, 燕山君의 妃인 廢妃 愼氏와 光海君의 妃인 廢妃 柳氏는 그들의 형제와 나란히 “女 廢主燕山君” 그리고 “女 光海君”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端宗의 妃인 定順王后 宋氏(1440~1521)와 英祖의 妃인 貞聖王后(1692~1757) 徐氏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百氏通譜』에 宋氏와 徐氏의 가계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찾아볼 수 없다.

<표 1> 『百氏通譜』에 나오는 王妃 관련 기록

王妃 기록	王名	諡號	王妃 기록	王名	諡號
太祖大王	太祖	神懿	仁獻王后	元宗	仁獻
神德王后	太祖	神德	仁烈王后	仁祖	仁烈
元敬王后	太宗	元敬	仁祖 莊烈王后 徽陵	仁祖	莊烈
昭憲王后	世宗	昭憲	仁宣王后	孝宗	仁宣
文宗 顯德王后	文宗	顯德	明聖王后	顯宗	明聖
貞熹王妃	世祖	貞熹	仁敬王后	肅宗	仁敬
昭惠王后	德宗	昭惠	仁顯王后 肅宗妃	肅宗	仁顯

王妃 기록	王名	諡號	王妃 기록	王名	諡號
章順王后 (수정:睿宗大王)	睿宗	章順	肅宗 仁元王后	肅宗	仁元
睿宗 安順王后	睿宗	安順	端懿王后	景宗	端懿
恭惠王后 (수정:成宗大王)	成宗	恭惠	景廟 宣懿王后	景宗	宣懿
成宗廢妃	成宗	없음	貞純王后	英祖	貞純
貞顯王后	成宗	貞顯	孝純王后	眞宗	孝純
中宗 端敬王妣	中宗	端敬	孝懿王后	正祖	孝懿
章敬王后	中宗	章敬	純祖王后	純祖	純元
文定王妃	中宗	文定	翼宗大王妃	翼宗	神貞
仁聖王后	仁宗	仁聖	憲宗王后	憲宗	孝顯
仁順王后	明宗	仁順	中宮殿 (수정:王大妃)	憲宗	孝定
懿仁王后	宣祖	懿仁	哲宗王后	哲宗	哲仁
仁穆大妃	宣祖	仁穆	中宮殿 當苧	高宗	明成

또한 『百氏通譜』에서는 憲宗의 繼妃인 孝定王后(1831~1904)와 高宗의 妃인 明成皇后(1851~1895) 두 사람을 ‘中宮殿’이라 칭하였다. 그리고 孝定王后에 대해서는 ‘中宮殿’이라 칭한 다음 그 기록 위에 종이를 덧붙이고 ‘王大妃’라 수정하였으며, 明成皇后에 대해서는 ‘中宮殿’이라 칭한 다음 ‘當苧’라 추가로 기록하였다. 明成皇后에게 칭한 ‘當苧’는 당대의 왕을 가리키는 ‘當宁’를 의미한다.



<사진 1> 孝定王后(좌)와 明成皇后(우)의 기록

孝定王后는 憲宗의 첫 번째 妃인 孝顯王后(1828~1843)의 뒤를 이어 王妃가 되었다. 憲宗(재위기간 1834~1849)은 純祖의 손자로, 1834년 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고 15세가 되는 1841년(현종 7)에

孝顯王后를 왕비로 맞이하였다. 하지만 孝顯王后는 2년 뒤인 1843년(헌종 9)에 세상을 떠났고 그 뒤를 이어 孝定王后가 王妃가 되었다. 孝定王后는 1844년(헌종 10)에 王妃가 되어 1904년(고종 41)에 사망하였고 사망한 그 해에 ‘孝定’이라는 諡號를 부여 받았다.

明成皇后는 高宗(재위기간 1863~1907)의 妃로, 1866년(고종 3)에 王妃가 되었다. 1851년(철종 2)에 태어난 그는 16세에 王妃가 되었고 王妃가 된 뒤로는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여 막강한 권위를 누렸다. 그러다가 1895년(고종 32) ‘乙未事變’의 와중에 일본인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朝鮮王朝實錄』에 따르면, 그는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1897년(고종 34)에 ‘明成’이라는 諡號를 부여 받았다.

그리고 ‘王大妃’는 일반적으로 바로 이전 왕의 妃가 살아 있을 때 그 王妃를 지칭하는 칭호였다. 또 우리가 이 王大妃라는 칭호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大王大妃’라는 것이 있는데, 이 大王大妃라는 칭호는 王大妃 바로 이전 왕의 妃가 살아 있을 때 그 王妃를 지칭하였다. 예를 들면, 景宗의 뒤를 이어 英祖가 즉위하였을 때에는 景宗의 妃인 宣懿王后(1705~1730)와 肅宗의 妃인 仁元王后(1687~1757)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宣懿王后가 王大妃가 되고 仁元王后가 大王大妃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항상 그대로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이전 왕의 妃 가운데 생존해 있는 사람이 3명 이상이 될 때에는 다른 원칙이 필요하였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哲宗 대와 高宗 대이다. 哲宗이 1849년에 즉위하였을 때에는 憲宗의 妃 孝定王后, 翼宗의 妃 神貞王后(1808~1890), 純祖의 妃 純元王后(1789~1857)가 모두 살아 있었다. 그래서 당시 위정자들은 이 세 사람을 ‘內三殿’이라 칭하며 이들에 대한 칭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각기 王大妃와 大王大妃라 칭해졌던 神貞王后와 純元王后는 그대로 부르고 憲宗의 妃 孝定王后만을 大妃라 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당시 예조에서 주관하였는데, 예조에서는 領中樞府事 趙寅永(1782~1850)의 의견을 채택하여 당시 垂簾聽政을 행하고 있던 大王大妃 純元王后에게 보고하였고 純元王后는 趙寅永의 의견을 그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성상(즉, 哲宗)께서 즉위하신 뒤에 內三殿에 位號를 加上하는 일로 大臣, 在外儒賢, 館閣堂上들과 상의하였는데, 領中樞府事 趙寅永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大王大妃라는 존칭은 옛 중국의 太皇太后라는 칭호를 모방한 것으로, 대왕대비라는 칭호 이외에는 더 높혀 드릴 근거가 없으니 막중한 전례를 어찌 함부로 논하겠습니까. 굳이 그 근거를 찾자면 옛 史書에서 그저 ‘太后’라 칭하거나 또는 ‘某太后’라 칭하여 구분한 적이 있는데,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이 전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大王大妃殿과 王大妃殿에 대한 존칭으로 그 앞에 다른 칭호를 加上할 필요 없이 단지 (憲宗의) 中宮殿까만 ‘大妃殿’이라 加上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근거가 없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하였습니다. … (중략) …” 하니, 大王大妃가 領中樞府事의 獻議대로 시행하라 명하였다.³⁾

3) 『哲宗實錄』 즉위년 6월 9일.

“禮曹啓 嗣位後 內三殿位號加上事 詢問大臣在外儒賢館閣堂上 領府事趙寅永以爲 謹按我朝大王大妃之尊稱

王大妃 純元王后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憲宗 대에王大妃였던 神貞王后와 王大妃였던 純元王后는 憲宗을 이어 즉위한 哲宗 대에도 계속해서王大妃와 王大妃라 칭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憲宗 대의 中宮殿으로 哲宗 대에는 마땅히王大妃라 칭해져야 했던 孝定王后는 大妃라는 새로운 칭호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1857년(철종 8) 8월 4일에 純元王后가 사망하자 상황은 다시 변하게 된다. 그래서 당시 위정자들은王大妃인 神貞王后를 王大妃라 높여 부르고 大妃인 孝定王后를王大妃라 높여 부르되, 이를 축하하기 위한 의식만큼은 純元王后에 대한 3년 喪이 마무리된 뒤에 거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純元王后가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나 예조에서 주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조의 보고를 받은 哲宗은 그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王大妃殿을 王大妃殿으로 높여 불러야 하고 大妃殿을王大妃殿으로 높여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陳賀하는 의식을 거행해야 하는데, 謄錄을 살펴보니 尊崇하는 의식은 國喪이 있을 때에는 3년을 기다린 뒤에吉日을 택하여 거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⁴⁾

1857년에 純元王后가 사망한 이후로는王大妃인 神貞王后가 王大妃가 되었고 大妃인 孝定王后가王大妃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哲宗이 즉위하기 이전에 살아 있는王妃들을 호칭하였던 원칙, 즉 바로 이전 왕의妃가 살아 있을 때에는王大妃라 부르고王大妃 바로 이전 왕의妃가 살아 있을 때에는 王大妃라 칭하였던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1863년에 高宗이 즉위하고 나서 또 다시 변하게 된다. 그 이유는 高宗이 즉위할 당시 哲宗의妃 哲仁王后(1837~1878), 憲宗의妃 孝定王后, 翼宗의妃 神貞王后가 모두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시 위정자들은 다시 哲宗이 즉위할 당시의 선례를 따라 孝定王后와 神貞王后를 계속해서王大妃와 王大妃라 부르기로 하고 哲仁王后를 大妃라 칭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신 1866년(고종 3) 새롭게 왕비가 된 明成皇后는 ‘中宮殿’이라 칭해지게 된다.

『百氏通譜』를 편찬한 사람이 이상과 같은 조선 말기 王室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그 내용을『百氏通譜』에 반영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百氏通譜』의 편찬자가 이상의 사실을 알고서『百氏通譜』에 반영하였다고 한다면, 孝定王后를 ‘王大妃’라 수정한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1857년 8월 4일 이후의 일일 것이며, 반대로『百氏通譜』의 편찬자가 이상의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哲宗

寔昉於古昔太皇太后之號 而外此無加隆可據之文 何敢妄議於莫重之典禮乎 無已則有一事之或可傍照者 古史未嘗無單稱太后處 或稱某太后處 以爲別焉 然則王大妃殿 王大妃殿徽稱 不必有增於前 只就中宮殿加上曰大妃殿 未爲無據云…(중략)…王大妃殿 命依領府事議施行.”

4) 『哲宗實錄』 8년 8월 10일.

“禮曹啓言 王大妃殿 當尊爲王大妃殿 大妃殿當尊爲王大妃殿 有進號陳賀之舉 而謹稽謄錄 則尊崇之禮 從前國恤時 待三年後擇吉舉行 今亦依此舉行 允之.”

이전의 관례에 따라 孝定王后를 ‘王大妃’라 기록하였다면 그것은 아마도 哲宗이 즉위한 1849년 6월 9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百氏通譜』에서는 憲宗의 妃인 孝定王后와 高宗의 妃인 明成皇后를 ‘中宮殿’이라 칭하였고 孝定王后에 대하여 ‘中宮殿’이라 칭하였다가 이후 이를 ‘王大妃’라 수정하였다는 점인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비록 孝定王后에 대한 칭호가 哲宗 대에 수정되었는지 아니면 高宗 대에 수정되었는지는 단언할 수 없을지라도, 『百氏通譜』를 편찬하는 작업이 憲宗 대와 高宗 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우리가 高宗 이전의 王妃들을 『百氏通譜』에서 찾아보면, 純祖 이전의 王妃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諡號를 칭하고 있는데 비하여 純祖의 妃인 純元王后, 翼宗의 妃인 神貞王后, 憲宗의 正妃인 孝顯王后, 그리고 哲宗의 妃인 哲仁王后에 대해서는 그들의 諡號를 칭하지 않고 王의 廟號를 따라 “純祖王后”, “翼宗大王妃”, “憲宗王后”, 그리고 “哲宗王后”라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諡號는 그 당사자가 죽은 뒤에 그 功德을 칭송하기 위해 부여하는 것으로, 『百氏通譜』에서 이들에 대해 諡號를 칭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百氏通譜』가 편찬될 당시에 이들이 살아 있었음을 말해 준다.

純元王后는 1802년(순조 2)에 王妃가 되어 1857년(철종 8) 8월 4일에 사망하였고 사망한 지 7년이 되는 8월 10일에 諡號가 정해졌으며 神貞王后는 純祖 대에 孝明世子(1809~1830)의 嬪이 되었다가 憲宗의 등극과 함께 孝明世子가 翼宗으로 추존되자 王大妃가 되었고 사망한 지 7년이 되는 1890년(고종 27) 4월 22일에 諡號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孝顯王后는 1837년(헌종 3)에 王妃가 되어 1843년(헌종 9) 8월 25일에 사망하였고 사망한 지 사흘이 되는 9월 1일에 諡號가 정해졌으며 哲仁王后는 1851년(철종 2)에 王妃가 되어 1878년(고종 15) 5월 12일에 사망하였고 사망한 지 7년이 되는 5월 17일에 諡號가 결정되었다. 즉 『百氏通譜』가 憲宗 대에 편찬될 때에는 純元王后와 神貞王后가 생존해 있었고 『百氏通譜』가 高宗 대에 편찬될 때에는 神貞王后와 哲仁王后가 살아 있었다. 그리고 孝顯王后는 1843년(헌종 9)에 사망하여 孝定王后가 “中宮殿”으로 있던 시기에는 사망한 것이 분명한데 그에 대하여 諡號를 칭하지 않고 “憲宗王后”라 칭한 것은 아마도 『百氏通譜』를 편찬한 사람이 誤記한 것이거나 또는 繼妃인 孝定王后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필자는 『百氏通譜』가 편찬된 시기를 추정하면서 이 譜牒은 憲宗의 繼妃인 孝定王后가 王妃의 지위에 있던 1844년(헌종 10)에서 1849년(헌종 15) 사이의 어느 시점부터 그 편찬이 시작되었고 高宗의 妃인 明成皇后가 王妃가 된 1866년(고종 3)에서 哲宗의 妃인 哲仁王后가 사망한 1878년 사이의 어느 해인가 그 편찬 작업은 완료되었을 것이라 말하였는데, 필자가 이와 같이 추정하였던 이유는 이상과 같은 조선 말기 王室의 상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3. 다른 기록을 통한 추정

『百氏通譜』에서는王妃에 대한 기록 이외에도, 그 편찬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더 나타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當宁’와 ‘今上’이라는 용어로, 이 용어들은 『百氏通譜』가 편찬될 당시의 왕을 의미한다. ‘當宁’와 ‘今上’이라는 용어는 『百氏通譜』 안에서도 주로 全州李氏의 가계를 수록한 부분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소개할 사례는 李世輔(1832~1895)에 대한 기록이다. 李世輔는 推宗王 元宗의 아들이자 仁祖의 친동생으로, 義安君 李城(1577~1588)에게 입후한 綾原大君 李備(1598~1656)의 후손이다. 李世輔는 初名이 ‘世輔’였으나 哲宗 연간에 ‘晤’로 개명하였다가 高宗 연간에는 ‘寅應’으로 다시 개명하였다. 하지만 『百氏通譜』에서는 그는 계속해서 初名인 ‘世輔’로 소개하고 있다.

李世輔는 李端和(1812~1860)의 아들로, 1851년(철종 2)에 조정의 명에 따라 豐溪君 李瑒(1783~1826)에게 입후하였고 입후한 이후에는 慶平君이라는 작호를 받았다. 豐溪君 李瑒은 推宗王 莊祖 즉 思悼世子의 손자이자 恩彦君 李祔(1754~1804)의 아들이다. 하지만 그는 恩彦君의 동생 恩全君 李禕(1759~1778)이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후사가 없이 죽게 되자 그의 후사를 잇게 되었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李世輔는 豐溪君 李瑒에게 입후한 뒤로 많은 비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조정 신료들의 커다란 비난을 받게 되었고, 1860년(철종 11)에는 마침내 그의 작호를 환수하고 養子의 지위에서 罷繼토록 한다는 조치가 내려지게 되었다. 『承政院日記』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1860년(철종 11) 11월 4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전교하기를, “豐溪君의 후사를 세우는 일을 빨리 정하게 하고 慶平君의 작호는 다시 환수하라.” 하였다.⁵⁾

이러한 李世輔에 대하여 『百氏通譜』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豐溪君 李瑒의 후사로 출계하여 慶平君이라는 작호를 수여받았다. 當宁 庚申年에 죄명으로 직첩을 빼앗기고 罷繼되어 本宗으로 돌아왔다.⁶⁾

여기에서 말하는 ‘當宁 庚申年’이란 哲宗 연간의 庚申年, 즉 ‘豐溪君의 후사를 빨리 정하게 하고 慶平君의 작호를 다시 환수하게 하라’는 결정을 내린 1860년(철종 11)을 가리킨다. 이처럼 『百氏通譜』에서 哲宗을 ‘當宁’라 칭하고 있는 사실은 『百氏通譜』가 憲宗 대는 물론이고 哲宗 대에도 계속해서 편찬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5) 『承政院日記』 철종 11년 11월 4일.

“傳曰 豐溪君立后 亟令擇定 慶平爵號 更爲還收.”

6) 『百氏通譜』 8권 11a면.

“出系豐溪君瑒后 授慶平君 當宁庚申 以罪名奪職 罷歸本宗.”

다음으로 소개할 사례는 高宗을 ‘今上’이나 ‘當宁’로 지칭하는 기록이다. 『百氏通譜』에서 高宗을 ‘今上’이나 ‘當宁’로 지칭하는 사례는 哲宗을 그와 같이 지칭하는 사례보다 월등히 많다. 이러한 기록들은 주로 甲子年 즉 1864년(고종 1), 乙丑年 즉 1865년(고종 2), 그리고 壬申年 즉 1872년(고종 9)에 관련된 것들이다.

甲子年에 관련된 기록은 驪興君 李垓(?~1730)와 驪陵君 李圻(?~1730) 형제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驪興君 李垓와 驪陵君 李圻 형제는 麟坪大君 李潛(1622~1658)의 증손이다. 또, 麟坪大君 李潛는 仁祖의 아들이자 孝宗의 동생으로 綾昌大君 李佺(1599~1615)에게 입후한 사람이다. 驪興君 李垓와 驪陵君 李圻 형제는 1728년(영조 4)에 발생한 ‘戊申亂’에 연루되었다가 풀려났으나, 그 후 2년 뒤인 1730년(영조 6)에 또 다른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당하였고, 高宗 연간에 이르러 신원되었다.

『朝鮮王朝實錄』에서는 이 형제가 1864년(고종 1) 7월 11일에 신원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전교하기를, “安貞副正 李昞, 楊平守 李得慶, 昌山君 李相, 樂新守 李人煥, 德新守 李人赫, 密平君 李堧, 密雲君 李堧, 驪川守 李圻, 潘陽都正 李炤, 一新都正 李人燁, 壺山君 李檀, 密豐君 李坦, 福昌君 李楨, 福善君 李柟, 驪興君 李垓, 驪陵君 李圻, 東平君 李杭과 李夏銓은 모두 관작을 회복시키라.” 하였다.⁷⁾

『百氏通譜』에서는 이 驪興君 李垓와 驪陵君 李圻 형제에 대하여 각기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李垓’條>

驪興君이다. 伏誅되었다. 今上 甲子年에 復爵되었고 특별히 명하여 從孫인 李秉淵을 입후하게 하였다.

<‘李圻’條>

驪陵君이다. 伏誅되었다. 甲子年에 신원되었다.⁸⁾

乙丑年에 관련된 기록은 高宗의 조부이자 興宣大院君 李昰應(1820~1898)의 아버지인 南延君 李球(1788~1836)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南延君 李球는 앞서 소개한 麟坪大君 李潛의 5대손 李秉源(1752~1822)의 아들로, 恩信君 李禎(?~1771)에게 입후하였다. 그리고 恩信君 李禎은 추존왕 莊祖의 아들로 앞서 언급한 恩彦君 李禔와 恩全君 李禎의 형제인데, 그 역시 肅宗의 아들인 延齡君 李田(1699~1719)에게 입후하였다.

7) 『高宗實錄』 1년 7월 11일.

“敎曰 安貞副正 昞 楊平守 得慶 昌山君 相 樂新守 人煥 德新守 人赫 密平君 堧 密雲君 堧 驪川守 圻 潘陽都正 炤 一新都正 人燁 壺山君 檀 密豐君 坦 福昌君 楨 福善君 柟 驪興君 垓 驪陵君 圻 東平君 杭 李夏銓 竝復官爵.”

8) 『百氏通譜』 8권 53a면.

“驪興君 伏誅 今上甲子 復爵 特命以從孫秉淵入后.”

“驪陵君 伏誅 甲子仲.”

南延君 李球은 1836년(헌종 2)에 사망하자 ‘榮僖’라는 諡號를 부여 받았다. 그리고 그는 高宗이 즉위하자 ‘忠正’이라는 새로운 시호를 부여 받았고 ‘不祧之典’의 은혜를 입게 되었으며, ‘不祧之典’의 은혜를 입은 이듬해에는 純祖의 廟廷에 배향되기까지 하였다. 『朝鮮王朝實錄』에서는 1865년(고종 2) 1월 13일에 그를 임금의 廟廷에 배향하도록 결정하였고, 이 결정에 따라 같은 날 賓廳에서는 그를 純祖의 廟廷에 배향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賓廳에서 아뢰기를, “仁祖의 廟廷에 배향할 功臣은 綾原大君 貞孝公 李浦로, 孝宗의 廟廷에 배향할 功臣은 麟坪大君 忠敬公 李潛로, 純祖의 廟廷에 배향할 功臣은 南延君 忠正公 李球와 豐恩府院君 忠敬公 趙萬永으로 하였습니다.” 하였다.⁹⁾

『百氏通譜』에서는 高宗의 증조가 되는 恩信君 李禎, 조부가 되는 南延君 李球, 그리고 아버지가 되는 興宣大院君 李昰應의 이름에 대하여 ‘諱’자를 칭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 가운데 南延君 李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諱가 球이다. 忠正公이다. 처음에는 諡號를 榮僖이라 하였다.. 不祧之典을 시행하였다. 今上 乙丑年에 純祖廟에 追配하였다.¹⁰⁾

壬申年에 관련된 기록은 定宗의 아들 守道君 李德生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守道君 李德生은 定宗의 후궁 가운데 한 사람인 淑儀 海平尹氏의 소생이다. 하지만 『朝鮮王朝實錄』과 같은 역사 문헌에서는 그에 관련된 기록을 많이 찾아볼 수 없고, 단지 그의 후손들 사이에서 전해오는 내용을 통해 그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守道君 李德生의 후손들은 李德生이 평소에 가졌던 행실에 대해 ‘好學守道’라 평하고 있다. ‘好學守道’라는 말은 현대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문구 가운데 하나인데, 굳이 우리말로 표현해 보자면 ‘평소에 학문하기를 좋아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도학에 힘썼다’ 정도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여하튼, 李德生이 평소에 학문을 좋아하고 도학에 힘썼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世宗이 그에게 ‘守道正’이라는 작호를 부여하였다는 것이 후손들의 주장이다.

또, 守道正 李德生은 端宗이 왕위에서 쫓겨나 江原道 寧越로 유배를 가게 되자 홀로 나와 端宗을 배송하였고, 端宗이 떠난 뒤로는 마치 저 중국의 伯夷叔齊가 首陽山으로 자취를 숨겼듯이 그 역시 楊州 默隱洞으로 행적을 감추고 號를 默隱이라 하였다. 그래서 후세 학자들은 그의 행적을 계속해서 칭송하였고 조선 중기에 활동한 重峯 趙憲(1544~1592)같은 사람은 그를 孔子의 제자인 顏子에게

9) 『高宗實錄』 2년 1월 13일.

“賓廳啓 仁祖廟庭配享功臣 綾原大君 貞孝公 浦 孝宗廟庭配享功臣 麟坪大君 忠敬公 潛 純祖廟庭配享功臣 南延君 忠正公 球 豐恩府院君 忠敬公 趙萬永.”

10) 『百氏通譜』 8권 67a면.

“諱球 忠正公 初諡榮僖 施不祧 今上乙丑 追配純祖廟.”

빛대어 ‘東方顏子’라 칭하기도 하였다.

重峯 趙憲이 守道正 李德生의 행적을 칭송한 내용은 全州李氏 守道君派의 族譜에 전해지는데, 이를 여기에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趙憲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 나라가 처음 건국되었을 때에 절개를 지키는 선비들은 비록 많았으나, 宗室의 왕자들 가운데에는 守道正 한 사람만이 ‘好學守道’를 하여서 그 당시 사람들이 ‘東方顏子’라 칭하였다. 그래서 ‘守道’라는 작호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名賢의 문집에 실려 있는데, 내가 일찍이 이를 보고 우러러 흠모한 지가 오래되었다. … (중략) … 世祖 丙子年(-1456년, 세조 2년)에는 端宗이 寧越로 가는 길을 홀로 배송하고서 楊州 默隱洞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래서 號를 줄곧 默隱이라 하고 죽었으니, 忠心이 해와 달을 꿰뚫고 道學이 淵源에 이어졌다 말할 수 있다.¹¹⁾

[趙憲嘗曰 建國草創之時 名賢守節之士 雖多 至於宗室諸王子中 獨守道正 好學守道 當世稱東方顏子 故爵號以守道 其說載於東賢文集也 余嘗欽慕敬仰者久矣 … (중략) … 世祖丙子 獨拜送端宗于越中之行 晦迹於楊州默隱洞 故仍號默隱而沒 忠貫日月 道接淵源]

高宗 연간에는 역대 왕자들 가운데 ‘君’의 작호를 받지 못한 왕자들을 ‘君’으로 봉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經國大典』이 편찬된 이후 後宮 소생의 왕자들에게는 으레 ‘君’의 작호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또, 高宗 당시에는 이전에 미처 ‘君’으로 봉해지지 않은 왕자들 ‘君’으로 봉하게 될 때에 ‘君’의 작호와 함께 諡號를 함께 부여하였으며, ‘君’의 작호를 받은 왕자들은 으레 領宗正卿이라는 관직을 겸하게 하였다. 이러한 高宗 연간의 조치로 인해, 守道正 李德生은 守道君으로 봉해지고, ‘僖靖’이라는 諡號를 받았으며, 領宗正卿에 추증되게 되었다.

전하는 기록에 따르면, 守道正 李德生이 ‘君’으로 봉해진 시기는 1872년(고종 9) 3월 23일이고, 그에게 諡號와 贈職이 내려진 시기는 같은 해 3월 28일이다. 이 중 守道正 李德生이 ‘君’으로 봉해진 당시의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宗親府에서 아뢰기를, “정종의 왕자 守道正 李德生, 林堰正 李祿生, 石保正 李福生, 長川都正 李普生, 貞石都正 李隆生은 아직 君으로 봉해지지 않았습니니다. 大君과 왕자를 品階없이 君에 봉한다는 것은 법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중략) … 그리고 君에 봉해졌다면 마땅히 諡號를 내리는 의식이 행해져야 하는데 (위 다섯 명의 왕자 가운데) 네 명의 왕자에게는 아직 諡號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니다. 諡號를 논의하는 자리를 기다렸다가 함께 거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¹²⁾

11) 濬源守道君派世譜編纂委員會, 『全州李氏守道君派世譜』 上卷 (回想社, 1985).

이 族譜는 1864년에 간행된 全州李氏 守道君派 派譜인 ‘甲子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12) 『高宗實錄』 9년 3월 23일.

“宗親府啓 定宗王子守道正 德生 林堰正 祿生 石保正 福生 長川都正 普生 貞石都正 隆生 尙未封君矣 大君王子之無階封君 典式攸在 … (중략) … 旣封君爵 則亦當施以節惠之典 四正之未及贈諡 待諡座一體舉行之意 付何如 允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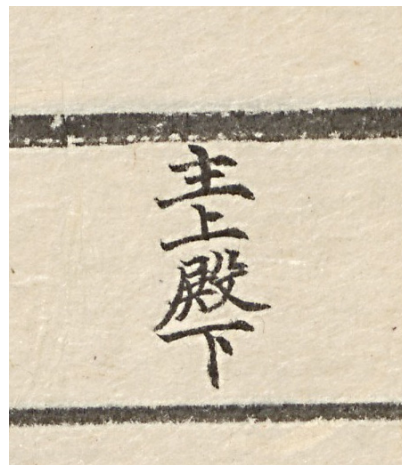
이 守道正 李德生에 대하여 『百氏通譜』에서는 守道君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守道君이다. 定宗大王의 일곱 번째 아들로, 淑儀 尹氏의 소생이다. ‘好學守道’하여 ‘東方顏子’라 칭해져서 ‘守道’라는 작호를 부여 받았다. 端宗이 선위할 때에 禍를 입었으나 신원되었다. 重峯 趙憲이 (그의 행실을 보고) “忠심이 해와 달을 꿰뚫고 道學이 淵源에 이어졌다”라는 시문을 지었다. 當宁 壬申年에 ‘君’으로 봉해졌고 領宗正卿에 추증되었으며 ‘僖靖’이라는 謚號를 받았다. 號는 默隱이다.

[守道君 定宗大王第七男 淑儀尹氏出 好學守道 世稱東方顏子 故賜爵號守道 端廟朝禪位時 被禍 伸雪 趙重峯撰曰 忠貫日月 道接淵源 當宁壬申 封君 領宗正卿 謚僖靖公 號默隱]

필자는 이상에서 ‘當宁’와 ‘今上’이라는 용어가 『百氏通譜』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하는 점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앞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當宁’와 ‘今上’이라는 용어는 살아 있는 당대의 왕을 지칭하는 말로, 『百氏通譜』 안에서는 哲宗과 高宗을 지칭하였다. 그리고 이 또한 앞서 이미 언급한 사실이지만, 『百氏通譜』에서는 憲宗의 繼妃인 孝定王后를 살아 있는 왕의 妃를 지칭하는 ‘中宮殿’이라는 용어로 칭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百氏通譜』가 孝定王后가 ‘中宮殿’에 있던 시기에 그 편찬이 시작되었고, 哲宗과 高宗 연간에도 계속해서 편찬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말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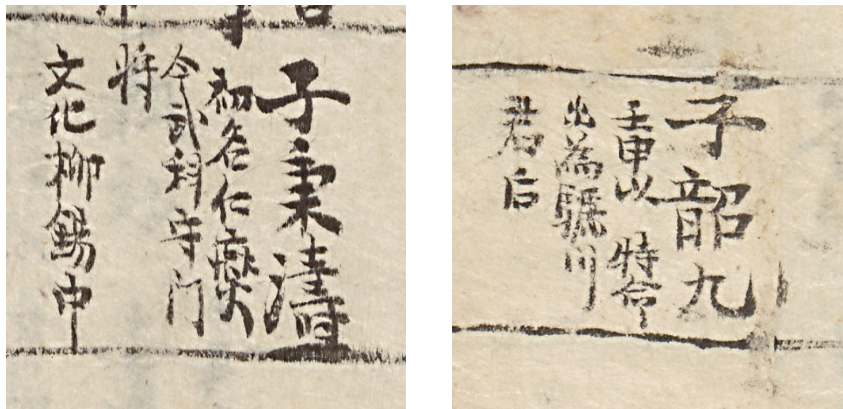
하지만 『百氏通譜』는 哲宗 연간보다는 高宗 연간에 대대적인 편찬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當宁’와 ‘今上’이라는 용어가 『百氏通譜』 안에서 지칭하는 대상이 哲宗보다는 高宗이 월등히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百氏通譜』의 편찬자가 哲宗에 대해서는 그의 廟號를 이용하여 ‘哲宗大王’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비하여 高宗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왕을 가리키는 ‘主上殿下’라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



<사진 2> 哲宗에 대한 칭호(좌)와 高宗에 대한 칭호(우)

13) 哲宗을 ‘哲宗大王’이라 기록한 것은 『百氏通譜』 8권 68b면을, 高宗을 ‘主上殿下’라 칭한 것은 『百氏通譜』 8권 67b면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밖에도 『百氏通譜』에는 高宗 연간에 편찬이 이루어지면서 생겨난 재미있는 몇 가지 사실이 나타난다. 그 중 하나가 李秉濤(1838~?)에 대한 기록이다. 李秉濤는 宣祖의 아들 義昌君 李瑋(1589~1645)의 후손으로, 1869년(고종 6)에 武科에 급제하였다. 이런 李秉濤에 대해 『百氏通譜』에서는 “初名은 仁燮으로, 이번 武科에 급제하였고 守門將을 지냈다[初名仁燮 今武科 守門將].”라고 소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今武科”란 두말할 필요도 없이 1869년(고종 6)에 실시된 武科를 말한다. 그리고 이 “今武科”라는 기록은 아마도 『百氏通譜』가 1869년 전후에 편찬되면서 생겨난 誤記로 생각된다. 또, 『百氏通譜』에는 이전의 기록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전의 기록 위에 高宗 연간에 그 내용을 수정한 모습도 나타난다. 李韶九는 仁興君 李瑛의 후손이자, 純祖 대에 우의정을 지낸 李晝九(1754~1825)의 동생이다. 이 李韶九에 대해 『百氏通譜』에서는 “壬申年에 특별히 명하여 驪川君에게 출계하게 하였다[壬申 以特命 出爲驪川君后].”라고 소개하였다. 驪川君은 義昌君 李瑋의 현손인 驪川君 李增(?~1752)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는 英祖 대에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후사 없이 사망하였다. 高宗은 李韶九에게 특별히 명하여 驪川君 李增의 뒤를 잇게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百氏通譜』의 편찬자는 기존에 작성된 기록 위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기도 하였다.



<사진 3> 李秉濤(좌)와 李韶九(우)에 관한 기록

4. 결 론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百氏通譜』가 具義書(1861~1930)에 의해 편찬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百氏通譜』의 내용 중에는 具義書의 생존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기록들이 많이 발견된다. 그 중에서 『百氏通譜』에 나오는 王妃에 관련된 기록들을 통해 『百氏通譜』의 편찬 시기를 살펴보면

『百氏通譜』는 憲宗의 繼妃인 孝定王后가 왕비의 지위에 있던 1844년(헌종 10)에서 1849년(헌종 15) 사이의 어느 시점부터 그 편찬이 시작되었고 高宗의 妃인 明成皇后가 왕비가 된 1866년(고종 3)에서 哲宗의 妃인 哲仁王后가 사망한 1878년 사이의 어느 해인가 그 내용이 대대적으로 수정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具義書가 생존하였던 시기에 맞추어 추론해 보면, 『百氏通譜』는 아마도 孝定王后가 王妃의 지위에 있던 시기에 편찬이 시작되었고 이후 明成皇后가 王妃의 지위에 있던 시기에 크게 수정되었으며 이후 다시 具義書에게 전해져 완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46권에 이르는 거질의 『百氏通譜』가 단기간에 걸쳐 편찬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기에 걸쳐 수정 보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宋俊浩. 『朝鮮社會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7.
- 安承俊. “萬家譜解題.” 『萬家譜』. 서울: 民昌文化社, 1992.
- 최양규. 『한국 족보 발달사』. 서울: 혜안, 2011.
- 박홍갑. 『우리 성씨와 족보 이야기』. 서울: 산치림, 2014.
- 차장섭. “조선시대 족보의 유형과 특징.” 『歷史教育論叢』 44(2010). 239-278.
- 정승모. 『한국의 족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 安光鎬. “中國의 郡望制度和 韓國의 本貫制度 비교 - 中國의 清河崔氏와 韓國의 南陽洪氏를 중심으로 -.” 『역사와 경계』 98(2016). 75-125.
- 璿源守道君派世譜編纂委員會. 『全州李氏守道君派世譜』. 서울: 回想社, 1985.
- 『氏族源流』. 서울: 保景文化社, 1991.
- 『萬家譜』. 서울: 民昌文化社, 1992.
- 『韓國系行譜』. 서울: 寶庫社, 1992.
- 『靑邱氏譜』. 서울: 民昌文化社, 1996.
- 『哲宗實錄』.
- 『承政院日記』.
- 『百氏通譜』.
- 『高宗實錄』.